

인도: 박현수 목사

- *예배로의 부름 ----- 인도자
- *신앙고백 ----- 다같이
사도신경
- *찬양 ----- 다같이
 - 완전하신 나의 주
 -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
- 참회의 기도 ----- 다같이
에베소서 1:7,14
- 봉헌 ----- 다같이
내게 있는 향유 옥합
- 기도 ----- 배석봉 집사
- 성경봉독 ----- 인도자
로마서 2:1-29
- 특별찬양 ----- 찬양대
십자가를 질 수 있나
- 설교 ----- 박현수 목사
“남을 판단하는 사람아”
- *찬양 ----- 다같이
왜 날 사랑하나
- *결단의 기도 ----- 다같이
- *축도 ----- 박현수 목사

*표는 일어서서
현금은 입구 현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
(Zelle 온라인현금: highland.giving@gmail.com)

P C A 하이랜드교회
한인중부노회

Highland Presbyterian Church

담임목사 박현수 (Rev. Jason Hyunsoo Park, Pastor)

820 S. Milwaukee Ave. Vernon Hills, IL 60061 ☎(847) 634-6033
www.highlandchurch.com (web) highlandchurch1977@gmail.com (교회)
parkhyunsoo@hotmail.com (담임목사) [hellofromhighland\(EM Web\)](mailto:hellofromhighland@emweb.com)

◀ 너그러워지면 좋겠습니다! ▶

아이가 앨리지가 있어 약을 먹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학교에 있는 동안 앨리지가 올라왔는데 약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. 학교에 있는 약을 주라고 했더니 학교에서는 약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. 집에 가서 약을 여분으로 챙겨 학교에 갔습니다. 그런데 학교 간호사가 보는 데서 한 알을 먹고, 나머지는 아이에게 줄 수 없다고 합니다. 고소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 일 것입니다. 학교에서 주는 약을 먹었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쉽게 고소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입니다. 그로서리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인데도, 아이에게 먹이려면 의사의 사인이 있어야 한답니다. 제 어릴 때 아프면 양호실에 가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약을 주는 대로 받아 먹고, 다치면 또 양호실에서 빨간 약을 바르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런데 그 때가 그렇습니다. 요즘은 너무 각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. 사람들은 조금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, 손해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. 그런데 성경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하십니다 -박목-

◀ 광고 ▶

- 임시 당회: 오늘 친교 후 당회장실
- 금요 특별 찬양예배: 4/24 금 7:30pm (문의: 최의순 장로)
- 구역 예배 안내: 1구역(4/26 주일 12:45pm 교회), 2구역 (4/26 주일 3:30pm 교회), 3구역(4/19 주일 4pm 교회), 4구역 (4/26 주일 3:45pm 교회)
- 담임목사 출타: P2P 인도자 수련회 (4/20-4/23) Sacramento, CA
- 친교: 이번주- 배석봉 집사 가정/ 다음주- 김영봉 장로 가정
- 협력기도: 김영자(김택문), 이맹표, 이오덕, 남궁운자, 김형곤(김순자)
- 다음주 기도
- 이번 주 봉헌위원: 윤지영 집사, 다음주 봉헌위원: 한은정 집사
- 금요예배 기도: EM
- 4월 뒷정리: 4구역

◀ 모임안내 ▶

- 금요 찬양예배: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
- 토요 새벽기도회: 매주 토요일 오전 6시
- Youtube QT 방송: 매주 수요일

◀ 교회를 섬기는 분들 ▶

담임 목사 박현수
E.M 목사 정영준(Jonny)
교사 Chris Choi, Jemimah Chae
시무장로 최의순 김태종
성가지휘 강수경
반주 Adam Kastler
찬양팀 최의순 최의설 강수경

◀ 후원 선교사 ▶

케냐 - 강충만
말라위 선교단 - 남성우
NOVO(NK) - 서예레미야
Pipeline Ministry - 심수영
REI - James Kang

*우리는 교인의 1%를 선교 보내는 1% 챌린지 교회입니다!